



뒷줄 좌로부터 신동구 주임, 이우광과장, 김연태
앞줄 좌로부터 이균익계장, 최혜남, 함동천



사업추진은 최선을, 업무는 책임있게

강원도지부 사업과

태백준령의 한뿌리, 호반의 도시 춘천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도 지부.

남들보다 10분 빨리 움직이라는 사업과 행동강령에 따라 각자 책상에는 누런 시험지위에 제반 점검사항이 까맣게 수놓여지며 각자 분야별로 하루의 업무가 분주히 시작된다.

대한민국의 표준체격을 고루갖춘 나무

랄데없는 사나이중의 사나이로 경상도의 구수한 사투리와 함께 인자함이 넘치시는 모범 가장이신 이우광 사업과장님. 사업과 총수로서의 그는 “뭣이! 말이야……”하고 말씀 하실때면 주위는 산천초목도 숨을 죽일듯 조용해지는 상황이 된다. 업무에 있어서는 한치의 오차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자며 항상 냉철하고 예리하게 직시하는 모습은 과히 놀랄만하다.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의 주인공. 학창시절에는 복습, 예습, 학습을 철저히 하셨다는 이과장님은 업무도 마찬가지로 항상 그날 일의 결산 및 다음날의 계획수립의 철저를 기하라고 늘 강조하시는 반면 사업과 직원 개개인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다정한 해결사 이시기도 하다. 비가오는 곳은 날이면 사업과 방문을 노크하는 꼬마 아가씨는 우산을 손에 들고 들어와서 “아빠! 퇴근할때 비맞지 말고 이거쓰고 오래이” 하며 퇴근길을 재촉하는 만딸 정희양의 재롱에 마냥 기쁘신 과장님께서 싱글벙글 하시면 그날의 12차 약속은 물거품이 되고마는 안타까운 일을 겪지 않을 수 없다.

건협 강원도지부의 역사와 함께 역경과 고난을 딛고 일어난 선봉자로서 사업과 터주대감역을 맡고 있는 김연태기사님. 강원도지부에서 어언 10여년을 근무하다보니 도내 각처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인관계에 폭이 넓으시다. 또한 해병대 출신으로 월남전에 참전한 역전의 용사로서 사나이의 필수조건을 100% 갖춘 그는 만능 스포츠맨이며 더우기 테니스는 가히 프로급을 자랑할 만하다. 아들 동민이는 학급 회장직을 맡고 공부도 잘한다고 늘상 즐거움으로 가득차 있으며, 동료직원끼리도 얼굴 잊어버리겠다고 말할 정도로 잦은 출장 업무에 익숙해진 그분은 어느날 건강검사 출장을 갔더니 어느 할아버지께서 “저- 말씀 들어봐. 내 머리속에 전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 잘 들어봐!” 하시며 머리를 김기사께로 돌리시더라. 김기사님왈 “네 잘 들립니다”했더니, “그럼 고쳐주는

거?” 하시더라는 것이다. 아롱든 덩치에 걸맞지않게 유우머가 풍부하신 개그파 이기도 하다.

차칭 꿀꿀이(?)라는 별명의 사업과 홍일점 아가씨 최혜남양. 이 아가씨는 강원도의 순진함과 소박함을 한몸에 타고 났다. 그러나 별명과는 정반대로 숙녀의 모든 매력을 유지하며 못 남성들의 온갖 시선을 집중시키고 사업과 유일 여성으로서의 한몫을 톡톡히 해내는 귀염둥이다. 또한 업무면에서는 여성의 섬세함과 치밀한 성격으로 사업과의 각종 굵은 일을 도맡아 가며 출근부터 퇴근시까지 말없이 척척 소화해내는 숨은 일꾼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거칠은 사나이들 틈에서의 생활에 따른 대화와 농담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어느덧 중성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가끔 놀라와 하며 좋은 신랑감 있으면 서슴치 말고 가야된다는 충고에 귀를 솔깃하는 것을 볼 때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의 아름다움이 더욱 성숙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최첨단의 유전공학의 발달과 더불어 인체에 유전공학을 응용(?) 해서인지 몰라도 결혼한지 한달 만에도 아기를 본다는데 “신혼생활의 아쉬움을 느껴서”라며 형이상학적인 말을 잘해서 전 직원의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웃음보따리 신동구주임. 모든일에 막힘이 없이 술술 풀어 버리는 그는 일단은 한번 허부작, ()부작했다 하면 만사형통. 그래서 인지 강원도지부 사업추진에 활기를 불어 넣어주는 촉진제 역할을 하며 각종 어렵고 희한한(?) 무드를 자아내는 분위기조성 마술사이기도 하다. 또한

그는 펜을 한번 잡으면 옆에서 누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게 일에 열중하는 몰두파이기도 하다. 고향이 한양인 그는 아직은 감자바위의 특성을 습득하지는 못했으나 본토박이 사람을 능가하는 것도 시간문제인 것 같아 은근히 토속인들의 마음에 걱정을 끼치는 누를 범할까 걱정이다. 신동구 주임의 어릴적 꿈은 영화감독과 주연 배우의 연기를 겸하는 것이라는데, 그래서인지 강원지부 자랑은 “내손안에 있소이다”하며 기질을 100% 발휘하며 홍보활동에 항상 바쁘다. 좀더 많은 사람이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보다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뜻에서 신동구주임은 이곳저곳 바쁘게 뛰어 다닌다.

“유학을 하고 영어를 하고 학사학위 받아야만 남자인가요-” 구수한 목소리의 소유자 함동천기사. 뭔가 한다고 일단 마음만 먹으면 해내고마는 강인한 의지의 사나이이다. 반면 국제도시 서울의 거리가 익숙치 않다는 강원도 원조(?)의 녀새가 물씬 풍기는 그에게서는 근면 검소한 생활을 가훈으로 삼아 성실히 업무에 매진한다. 얼마전 첫딸에 이은 아들의 이름을 태식이라 짓고

아빠의 강인한 생각을 계승시키고자 했으며 가정적으로는 부인을 무척 사랑하는 공처가이기도 하다. 회식자리에 함께 하노라며 어느새 알콜 100cc정도를 입에 불러들이고는 빨간 얼국의 양쪽 귀에서 섹섹소리가 난다며 흥을 돋우는 그는 친성이 감자바위다.

끝으로 안경너머 어렴풋이 보이는 “창밖의 남자” 한국형 도깨비인 필자는 뭐있나! 그저 무엇이든 하면된다는 신념으로 모든일에 성심, 성의껏 충실하고 있다. 또한 사업과의 화목을 위해서 “송구리당당 송당당, 수구수구당당 송당당”을 수시로 외친다. 필자의 바램이라면, 올해는 단풍지기전에 총각신세를 면했으면 하는 것이다.

오늘도 산수 좋고 인심 좋은 호반의 도시 춘천에 근무하는 사업과 전직원은 장재성 사무국장님의 업무방침인 “사업추진은 최선을, 업무는 책임있게”라는 기치아래 도민의 건강은 우리손으로 증진시킨다는 사명감과 신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일할것을 다짐해본다.

강원도지부 사업과 화이팅……

〈필자=사업계장 이균익〉

웃음 한마당

재판장

재판장은 모들뜨기였다. 피고 세사람을 앞에 놓고 차례대로 심문을 개시하게 되었는데 맨 바른쪽의 피고에게

『주소는?』

하고 물었다. 그러니까 가운데 피고가 얼른 대답을 한다. 재판장은 화를 내며

『누가 그대에게 물었는가?』
 하였다.그런즉 이번에는 맨 왼쪽의 피고가
 『전 아무말도 안했는데요.』

